

제26차 우즈베키스탄 지작(Jizzax)시 해외무료수술봉사

The 26th Overseas Cleft Lip Friendship Operation in UZBEKISTAN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이사장 정필훈, 후원회장 양수남)는 KB금융그룹의 후원을 받아 2017년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지작시 어린이종합병원에서 환자 53명을 접수하여 23명에게 구순구개열 수술과 안면 기형 수술을 해주어 밝은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번 지작시 봉사는 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출생 마을로 알려져 있다. 현지 모든 분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지작시 어린이종합병원장(중앙 흰가운)을 비롯한 보건성 여러분들이 정필훈 교수(병원장 좌측)와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봉사 의료진들에 대한 환영과 함께 수술이 시작 되었다. 총 23명이 밝은 미소를 갖게 되었다.

KB 희망진료



Cleft Lip Friendship Operation in UZBEKISTAN

(O'zbekistonda quyon lablilar operatsiyasini do'stona amalga oshirish)

March 26 ~ April 03, 2017

Korean Association of Research and Charity for Craniofacial Deformity



Sponsor | KB Financial Group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26번째 해외무료수술봉사는 우즈베키스탄 지작시!!!



첫 번째 환자를 정필훈 교수의 지도하에 봉사가 시작되었다.
현지 의사들의 관심 하에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 졌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이사장 정필훈, 후원회장 양수남)는 26번째 무료수술봉사 지역으로 우즈베키스탄 지작시를 선택하였다. 2015년 도 8월 첫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봉사에 이어 두 번째 무료수술봉사이다. 타슈켄트 병원의 공사 관계로 몇 번 연기하다가 부득이 타슈켄트에서 승용차로 4시간이상 떨어진 지작(JIZZAX)시 어린이종합병원에서 봉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침 지작시는 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출생 마을이라 하여 관심이 많았다.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었다. 특히 이 곳 봉사는 사전 예진을 하기 위하여 표성운교수와 정승우 봉사학생이 수고를 해 주었다. 총 53명의 환자들을 예진을 하고 돌아왔다. 미리 사진도 확보할 수 있어 본진이 도착했을 때는 순조롭게 수술을 할 수 있었다. 정필훈 교수와 한성의 원장, 정한울 선생, 이주영 선생, 유강희 선생, 서해주 간호사, 김남식 후원이사, 정광훈 사무국장이 수고를 해 주어 총 23명을 수술을 했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밝은 미소를 갖게 해 주고 싶었지만 봉사 기간에 완쾌가 되기 힘든 환자들이 많아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지작시 어린이종합병원에서의 봉사활동



1. 지작시 어린이종합병원 앞에서 봉사 시작 기념으로 찰칵



2. 봉사팀들을 환영해 주는 지작어린이종합병원장 외 여러분
4. 첫 번째 환자를 마취하고 있는 현지 의사와 봉사팀 의료진



3. 수술 환자를 다시 체크하는 봉사 의료팀과 현지 의사들
5. 수술을 마친 환자와 그 가족들과 이별을 아쉬워 하면서

두 번째로 찾은 2017년도 우즈베키스탄 무료수술봉사



모든 수술을 마치고 병원의료진, 환자들과 짧게나마 봉사팀원들. 또 다시 만나요!!!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이사장 정필훈, 후원회장 양수남)는 2015년 8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첫 번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치과대학병원에서 25번째 해외무료수술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총30명을 접수 받아 현지에서 수술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20명에게 밝은 미소를 찾아주는 따뜻한 의술을 베풀어 주고 왔다. 수술 받은 환자들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부모들은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다음에도 꼭 다시 방문해 달라고... 이번에 그 약속을 지켰다. 2017년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총53명을 예진을 거쳐 23명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할 수 있었던 26번째 해외무료수술봉사 이었다. 또한 현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 한명은 서울로 초청하여 2015년 5월 11일 수술도 해 주어 현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무리딘, 남, 25세)

이번 두 번째 봉사는 타슈켄트 치과병원의 공사로 부득이 다른 장소로 옮겨 봉사할 수 밖에 없었다. 타슈켄트에서 차로 4시간 이상 걸리는 시골의 작은 마을(지작)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곳 지작시는 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출생지라 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멀어도 봉사 정신을 발휘하여 힘을 내기로 하였다. 이번 봉사로 사전 예진을 하고 오신 표성운교수와 정승우 학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비록 본진에는 같이 못 갔지만 많은 도움과 함께 순조로운 수술의 밑거름이 되었다. 다시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진에는 정필훈 이사장, 한성익 원장, 정한울 선생, 이주영 선생, 유강희 선생, 서해주 간호사, 김남식 후원이사, 그리고 정광훈 사무국장이 수고해 주셨다. 다시한 번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감사합니다.

수술하는 봉사팀원들 모습



1. 정필훈 교수 지도하에 수술하는 모습. 우측은 통역담당(알리)
3. 정한울 선생과 유강희 선생, 서해주 간호사의 수술하는 모습.
5. 수술 과정도 빠짐없이 한 컷. 그 순간에 잠깐...찰칵

2. 한성익 원장이 구개열 수술을하는 모습.현지의료진도 관심이 많다.
4. 정필훈 교수, 이주영 선생, 유강희 선생, 서해주 간호사가 한팀으로...
6. 우즈베키스탄 방송에서도 촬영과 함께 홍보를...감사합니다.

제26차 우즈베키스탄 무료수술봉사 현장



1. 수술환자를 다시 체크하고있는 정필훈 교수
2. 첫 환자를 마취하고 있는 마취과팀. 이제 수술 시작입니다.
3. 수술하고 있는 정필훈 교수와 의료팀들
4. 수술한 환자를 퇴원시키고 있는 의료봉사팀
5. 우즈베키스탄 사전 예진에 참여한 표성운 교수와 정승우 봉사원의 우즈베키스탄 의료진들
6. 하루 동안 우즈베키스탄 53명의 환자를 예진한 표성운 교수
7. 봉사팀과 함께 다음 환자에 대한 수술준비를 하고 있는 마취과팀.
8. 현지 의료팀의 관심하에 수술을 하고 있는 봉사 의료팀
9. 수술하는 모습을 TV방송용으로 촬영하고 있는 방송팀
10. 수술한 환자들을 회진하고 있는 의료봉사팀
11. 퇴원 예정인 환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성의 원장
12. 모든 수술이 끝나고 봉사팀의 여자선생님들과 함께한 현지 병원장(우측)
13. 모든 수술이 끝나고 마지막 회진을 끝낸 의료봉사팀

2017년 우즈베키스탄 무료수술봉사 후기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기행문

간호사 서해주

우즈베크를 가기전까지 2차례의 스케줄 조정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마지막 우즈베크 가는 날짜가 정해졌을 때는 병원을 그만두는 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내겐 완벽한 스케줄이었다. 나의 인생에서 임상경력을 마무리하며 간호사로서 초심과 긍지를 되새길 수 있는 경험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을 그만두고 바로 다음날 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봉사 준비는 벌써 몇 달 전에 다 준비해 놓아서 처음 떠나는 해외의료봉사 치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약 8시간 정도의 비행을 통해 한국에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논문도 마무리하고 우즈베크에서 할 수술도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다. 우즈베크에 도착하여 한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타슈켄트의 숙소로 들어가 푹 잤었다.

우즈베크 봉사 첫날, 우즈베크의 지방인 지카스로 내려가 대통령 고향병원인 어린이 병원을 방문하였다. 꽃과 다과로 보전복지부 장관까지 오셔서 환영해주었다. 예진 준비와 수술 준비를 하면서 예진 먼저 끝난 뒤 수술실로 와서 물품을 세정한 뒤 첫 수술을 시작하였다. 첫 날은 수술침대를 한 개로 운영했기에 간호사가 나 혼자여도 경험 많으신 교수님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다.

다음 날부터는 수술실 침대 2개로 거의 동시에 수술이 진행 되었고 간호사는 1명에 의사는 4명 사무행정인원 2명으로 간호사 혼자로는 빠빠한 일정이었으나 김사장님과 사무국장님께서 circulating 간호사 역할을 잘 도와주셨고 통역을 통해 현지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술과정과 수술도구를 알려주고 다른 수술침대는 현지 간호사가 scrub 간호사 역할을 해주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서로 맞춰가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3째날 부터는 케도에 올라 많은 수술이 잘 진행되었다. Palatal cleft 수술은 수술 후 처치가 중요하기에 수요일까지 최대한 수술을 해주려고 했기에 아침부터 밤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술을 하였다. 에어컨 기능도 떨어져서 덥고 무명등 불빛은 약해서 밤이 되니 잘 보이지 않아 애를 먹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들 모두 최선을 다해 최대의 많은 수술을 하고 보냈을

때에 몸은 피곤해 감기몸살이 걸렸으나 뿌듯했고 부럼 찼다.

목요일부터는 수술 후 관리가 안되 위험성 때문에 palatal cleft 수술은 거의 못 해주었고 lip 위주로 수술을 해주어서 lip 환자들은 생각보다 적었기에 수요일 만큼 많은 수술은 하지 못하였다. 몸이 절정은 찢고 힘들 때에 어느 정도 컨디션이 수술 스케줄과 맞춰지는 것 같았다.

마지막 날 선물과 함께 그동안 감사했던 현지 의료진들께 인사를 하였다. 많은 의료진들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해주고 본인이 지각 주변에 안가 봤으면 같이 안내 해주겠다고 말해주어서 감사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배려로 의료봉사가 잘 마무리 되었다. 처음 해외의료봉사에 같이 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열심히 도와주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사무국장님과 김사장님의 도움이 없이는 간호파트의 역할이 잘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독후감을 빌어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교수님의 즐거운 입담으로 심심하지 않게 의료봉사를 다녀올 수 있었고, 통역을 잘해주었던 호드와 알리에게도, 또한 의료봉사기간에 지각 병원에 한식 도시락을 먼 곳에서 배달해 먹게 해주신 배려에도 감사드린다. 처음의 기대와 같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고 다음의 기회가 생긴다면 함께 하고 싶다.



우즈베키스탄 봉사활동 감상문

레지던트 1년차 유강희

치과대학에 입학할 때 훌륭한 의료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모두들 한 번씩은 마음속에 품어 보았을지언정 일이 바로 의료봉사일 것이다. 그러나 바쁘다는 사정으로, 기회가 없다는 사정으로 쉽사리 행하지 못하는 것이 또 의료봉사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고 더군다나 해외 의료봉사활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2017년 3월, 바로 그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봉사단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번 해외 봉사활동은 2017년 3월 26일부터 2017년 4월 3일까지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지카스에서 시행되었으며, 주 대상은 구순구개열을 가진 환자들이었다. 해외 의료봉사는 여건 상 대수술 및 장기간의 체류가 힘들다. 구순구개열 수술은 짧은 봉사기간동안 다수의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구강악안면 영역의 기형이 해결됨으로써 향상되는 환자의 Quality of Life(QOL, 삶의 질)이 크다는 점에서 해외 의료봉사 대상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8명의 소수정예로 꾸려진 이번 봉사팀은 단기간 동안 구순구개열 수술 및 기타 마이너 수술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환자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올 수 있었다. 수술 후 보게 된 그들의 밝은 미소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활력을 되찾아 주는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다.

구순구개열 수술은 한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수술이지만 우즈베키스탄에는 이번 의료봉사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환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이 행해진 지카스의 병원에 처음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릴 때 우리 봉사팀을 맞이하여 주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의 환영, 그리고 도움을 갈구하는 그들의 눈길을 보며 강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다잡게 되었다. 병원의 시스템 및 인프라, 소통의 어려움 등 주변 여건이 당연히 한국보다 미흡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난관을 척척 타개해 나가며 환자를 진료하시는 정필훈 교수님 이하 의료봉사팀원들의 모습을 보며 나 역시 팀에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하여 정신을 집중하였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해내는 일보다 봉사팀으로부터 배우고 얻어가는 것들이 더 많아 송구한 마음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팀에 보탬이 되는듯하여 큰 성취감도 맛보았다. 의료봉사팀원의 막내로서 잡일을 도맡아함으로써 팀원들이 수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하였지만, 함께 하였던 교수님과 선생님들은 나를 잡일 담당이 아닌, 제자와 후배로서 한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셔서 봉사 기간 내내 큰 감동을 받았다. 수술의 많은 부분에 함께 하고 참여함으로써 앞으로의 구강악안면외과 레지던트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자신감 등 큰 자산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이처럼 어떠한 부담도 없이 의료 활동에만 집중하며 즐겁고 유익한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다녀올 수 있었던 데에는, 이번 의료봉사 후원을 이끌어주신 정필훈 교수님과 물질양면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정광훈 사무국장님, 그리고 모든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의 조력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글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으며 앞으로 더욱 보탬이 되는 팀원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야 하겠다.



2017년 우즈베키스탄 무료수술봉사 후기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와서

예전부터 의료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를 통해 첫번째 해외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총 8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봉사팀은 타슈켄트공항에 도착한 후 다시 차로 4시간 정도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고향인 작은마을 지작(zizzakh)에 도착하였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천공항을 떠나 지작어린이종합병원에 도착하였을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고한 사명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진료를 받기위해 기다림에 지쳐 있었지만 우리를 보고 씩씩하게 웃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소수의 인원으로 꾸려진 팀이기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해주기위해서 봉사팀원들은 아침 8시부터 해가질 때까지 쉬틈없이 수술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늦게까지 수술을 끝내고 다음날 있을 수술준비와 회의를 마치고 거의 쓰러지듯 잠들었고 이른 시간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다가도 아침 일찍 분주히 움직이는 봉사팀들의 모습에서 하루의 에너지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로 구순구개열 환자를 포함한 총 23명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만큼 중요한 수술후 관리를 위해 교수님께서 매일 회진을 돌면서 꼼꼼

하게 환자들의 경과를 봐주시고 소독을 하시며 현지 의료진과 보호자에게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밝게 웃으며 눈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보호자와 환자의 눈빛은 내가 의료인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술팀을 이끌어 주신 정필훈 교수님과 한성의 원장님께 매번의 수술을 최선을 다 하시면서 보여 주셨던 열정과 저희 전공의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진에게 주셨던 많은 가르침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도움을 주기 위해 갔지만 더 많은 따뜻함을 받았던 우즈베키스탄의 봉사활동은 나에게 값진 시간들이었으며 앞으로 의사로서의 삶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뿐만 아니라 마음 따뜻한 훌륭한 의료진으로 거듭나 나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 어린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주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전공의 이주영



KB희망진료와 이동치과진료 봉사는 계속됩니다.

KB금융그룹의 KB희망진료 슬로건하에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 25일 현재까지 총29차에 걸쳐 총884명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제한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국내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과 다문화가족/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를 해 주고 있다. 2016년 1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재한몽골학교 학생들에 대한 치과 기본치료를 해 주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충치가 심해 한명당 2~3개의 충치치료를 해준 기억이 있다(총75명). 몽고에서 먹던 습관이 남아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사탕을 먹은 결과 많은 충치가 발생하게 된 결과였던 것이다. 또한 같은 지역의 나섬공동체 다문화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치과 기본치료인 발치와 충치치료, 스퀴링 등을 두차례에 걸쳐 총55명에게 치료를 해주었다.

2017년 5월 28일에는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사)들꽃청소년세상(경기지부)의 그룹홈 청소년 32명에게도 정기적인 치과 치료를 해주었다.

찾아가는 이동치과진료 현황

회차	진료날짜	방문단체	진료인원	비고(지역)
제25차	2016. 11. 20. 일	재한몽골학교	44명	서울 광진구
제26차	2016. 12. 04. 일	재한몽골학교	31명	서울 광진구
제27차	2017. 04. 16. 일	나섬공동체	24명	서울 광진구
제28차	2017. 05. 28. 일	(사)들꽃청소년세상(경기지부)	32명	안산 단원구
제29차	2017. 07.16. 일	나섬공동체	31명	서울 광진구
총계	총 5회	5단체	162명	(총 29차 884명)

안면기형 수술 환자 현황

No.	KB no.	성명	성별	병명	비고	No.	KB no.	성명	성별	병명	비고(지역)
1	Kb-17	안○주	여	부정교합	20160822	5	Kb-40	이○용	남	구강암	20161010
2	Kb-18	송○주	여	부정교합	20160822	6	Kb-41	허○정	여	크루즌중후군	20170517
3	Kb-34	김○현	남	안면왜소증	20160825	7	Kb-35	주○이	남	구순구개열	20170828 중국
4	Kb-24	황○현	여	에이퍼트중후군	20160908	Kb-42, Kb-43, Kb-44 환자 10월중 수술 예정					

* KB 희망진료

찾아가는 이동치과진료 무료봉사

찾아가는 이동치과진료 모습들...

감사문(중국 환자 부모)

尊敬的郑教授、郑局长和衷团队(KB金融控股公司和韩国畸形脸患者的后援会的每一位：真诚的感谢你们无私的真诚的帮助！感谢郑教授精湛的医术和严谨的治疗态度！我们的儿子慕义的唇颚情况比较严重，上颌和上嘴唇完全开裂，上颌从扁桃体到上牙床的位置全部是裂开的，因为上颌完全开裂，所以慕义的咀嚼，吞咽，甚至呼吸健康和发音都会受到影响。

这次手术是我们的儿子慕义的第二次手术，前两次手术针对的是嘴唇的修复。这次手术针对的是慕义的上颌，由于慕义上颌裂开的部分比较长，手术难度比较大。在手术之前，我们也一直担心是否可以在一次手术中把慕义上颌裂开的部分全部修复？慕义是否要承受两次手术的疼痛？而且我们也实在想不到要怎样修复。

感谢郑教授精湛的医术和丰富的经验，慕义在这次的手术中，上颌裂开的部分被全部修复，而且手术非常成功。看到慕义手术后的上颌，我们真的很好奇，因为看起来和正常的孩子的上颌一样。我们也非常感谢，感谢为慕义做手术的每一位！

感谢郑局长和整个团队，在慕义的医疗费方面给予的支持。这次手术很复杂，所以费用也很高，是作为留学生的我们很难支付的，即使作为父母的我们愿意支付，也将会是很大的重担，甚至慕义的手术时间也会推迟。但是感谢郑局长以及整个后援团队慷慨无私的帮助，使得慕义的手术可以在恰当的时间顺利进行。真诚地感谢你们的帮助！

感谢你们的帮助，慕义现在恢复的很好，而且他的发音也更加清晰和多样。作为父母的我们，看到现在的慕义，心里真的高兴！感谢尊敬的各位像天使一样的帮助我们。愿上帝祝福你们！作为父母的我们真的期待我们的孩子将来也能够成为优秀的医生，像你们那样帮助更多需要的人。

周慕义的爸爸，妈妈
周传，任孟莹



존경하는 정밀훈 교수님, 정국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KB금융지주'와 '한국 얼굴 기형 환자 후원회'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사심 없는 정성어린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밀하고도 뛰어난 의술과 신중하고도 세심하게 임하셨던 정밀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들 무의의 입술과 입천장의 갈라진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입천장과 윗입술(입술 끝부터 코 안의 모든 부분)은 완전히 갈라져 있었고, 입천장도 편도에서 윗잇몸까지 전부 갈라져있었습니다. 입천장이 완전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씹고 삼키고 호흡하고 발음하는 등 건강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수술이 저희 아들 무의의 3번째 수술이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두 차례 수술이 입술(입술부터 코 속 모든 부분)을 바로잡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수술은 입천장에 초점을 맞춘 수술이었습니다. 입천장의 갈라진 부분(입천장 모든 부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수술의 어려움도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수술하기 전, 저희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수술로 무의의 갈라진 부분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무의가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의 통증을 견뎌낼 수 있을까? 게다가,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일지 상상할 수(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정밀한 수술과 풍부한 경험을 지니신 정밀훈 교수님 감사를 올립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이번 수술로 갈라져있던 무의의 입천장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무의의 입천장을 보았을 때, 저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

있으려면 정상적인 아이의 입천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의 수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정국장님, 'KB금융지주', '한국 얼굴 기형 환자 후원회' 여러분(모든 단체)! 무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수술(지난번 수술)은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비용도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유학생인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부모가 된 저희가 부담했더라면 부담이 너무 커서, 어쩌면 무의의 수술 시기가 미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국장님, 'KB금융지주', '한국 얼굴 기형 환자 후원회'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심 없는 도움으로, 무의의 수술이 적당한 시기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현재 무의의 회복은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무의의 발음도 더 또렷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부모 된 저희가 보기에 지금 무의의 마음은 정말 즐거워 보입니다.

저희에게 천사와 같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장차 우수한 의사가 되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부모 된 저희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부의 엄마와 아빠
주전, 임맹영 올림!!

※번역: 김정숙



(사)얼굴성형정보연구소 부설기관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

(얼굴기형환자를 무료로 수술해 드립니다)

한국얼굴기형환자후원회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정필훈 교수와 뜻을 같이하는 여러 동료, 선후배가 모여 배운 바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1998년 10월 31일부터 지금까지 구순구개열, 턱뼈기형, 머리뼈기형, 각종 얼굴기형 증후군 환자들에게(국내 1138명, 해외 829명) 행복한 사랑의 미소를 간직할 수 있도록 무료 수술 및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수술 경비는 각 후원 단체나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학술대회와 얼굴기형에 대한 정보 분석연구, 새로운 수술법 개발 및 전수, 국내외 무료수술 의료봉사 사업, 찾아가는 이동치과진료 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2002년 6월 파키스탄 구순구개열 환자 무료수술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우즈베키스탄의 봉사까지 총15개국(파키스탄, 이집트, 중국, 캄보디아, 요르단, 케냐, 인도, 베트남, 에티오피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네팔, 필리핀,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26회에 걸쳐 16년간 해외 829명, 국내 1138명(2017년 8월 기준) 환자들을 수술 및 치료를 해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해외에서는 수술실 여건상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주로 수술해 주지만 국내에서는 구순구개열 뿐만 아니라 턱, 얼굴, 구개골과 얼굴기형을 동반하는 증후군(에이퍼트증후군, 크루즌증후군 등)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얼굴과 정신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특히, 2013년도 부터는 KB금융그룹의 후원을 받아 얼굴기형이 있으나 경제적으로 수술하기 힘들고 사회에 소외되는 국내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치료(884명) 및 수술(41명)을 해 주고 있으며 이동 치과진료차량을 제작하여 전국 각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진료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신청과 후원을 바랍니다.

■ 주요사업

- 국내의 얼굴기형환자 무료상담, 무료수술, 의료봉사사업
- 각 단체 후원금 모금 활동 및 의료봉사사업
- 턱, 얼굴기형에 대한 학술연구 교류 및 수술법 개발 사업
- 이동치과진료차량으로 찾아가는 진료센터운영 사업
- 해외무료수술봉사사업(1~2회/년)
- 후원회 목적달성을 위한 모금운동 및 사업계획

■ 무료진료 / 수술신청

- 서류 : [진료비지원신청서](#) 작성후 제출 (www.goodface.net 에서 다운로드)
- 대상 : 저소득층 구순구개열, 안면증후군환자, 지역 이동치과진료환자
- 후원 : KB금융그룹, 후원회원
- E-메일 접수 : karc@naver.com

■ 후원방법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9-811730, (사)얼굴성형정보연구소
- 의료용품, 문구류는 후원회사무국에서 접수(T/F : 02-740-8725 · T : 070-4038-7525)
- 후원하신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 신청시 세법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연락처 : 010-6213-4292)

■ 후원대상자

- 두개골-안면기형 증후군(크루즌, 에이퍼트 증후군)
- 구순구개열(언청이)
- 귀 기형을 포함하는 얼굴기형
- 중안모 함몰기형
- 얼굴비대칭

■ 해외 봉사 국가들(15개국)

파키스탄(2), 이집트(2), 중국(3), 캄보디아, 베트남(2), 요르단, 케냐(2), 인도(2), 에티오피아, 키르기스스탄(2), 라오스, 네팔, 필리핀(2), 동티모르(2), 우즈베키스탄(2)

■ Subject

- Cranio-facial deformity (Crouzon and Apert syndrome)
- Cleft lip and palate
- Hemifacial microsomia
- Midfacial depression deformity
- Facial asymmetry

■ The Countries We Visited(15 Countries)

Pakistan(2), Egypt(2), China(3), Cambodia, Vietnam(2), Jordan, Kenya(2), India(2), Ethiopia, Kyrgyzstan(2), Laos, Nepal, Philippines(2), Timor-Leste(2), Uzbekistan(2)

■ 후원대상자

1. 두개골 기형(에 : 크루즌 증후군)



2. 구순구개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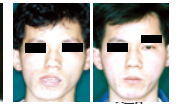
3. 귀 기형을 포함하는 얼굴기형



4. 중안모 함몰 기형



5. 얼굴 비대칭



후원해 주신 모든 회원님, 항상 감사합니다!

한 국가의 얼굴기형환자들이 계속 무료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줄 단체나 개인 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동진료 / 수술차량의 방문 치료를 원하는 지역이나 관련 단체장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